

대학생의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 지식과 가치관에 따른 유형분류 및 재정적 특성분석

A Study on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of College Students

: Classification 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Knowledge and the Valu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 교수 홍 은 실**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Hong, Eun-Sil

<Abstract>

This paper diagnoses the financial knowledge of the college students and their values on financial situation. Another emphasis is given to the classification of surveyed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ir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and the financial traits of each classified group is also analyze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ith total number of 733 questionnaires.

Primary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score of financial knowledge was 62.65 points, showing the highest points in spending while lowest in savings and investment. Senior classes, students majoring in liberal arts, students with financial education and media experiences scored high points. Second, overall score of college students on financial values was 3.92, resulting in high points on credit and frugality but points on sharing with others were low. Thirdly, all surveyed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based on the mean scores on financial knowledges and values. Total 31.7% of students belonged to Type 1 where students scored high points on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Type 2 had about 22.4 % of students whose financial score was high but value score was low. Type 3 occupied 24.2% and this group scored low points on financial knowledge but high points on financial values. Type 4 occupied 21.8% and was a group of students whose scores for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were low. Finally, Type 1 and 3 groups showed better desirable behaviors for financial management and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status for finance than Type 2 and 4. Type 1 is a group of students whose subjective financial level was high. Monthly income was highest in Type 2 and financial stress was lowest in Type 1.

▲주요어(Key Words) : 재정지식(financial knowledge), 재정관련 가치관(values related to finance), 재정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재정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 재정 스트레스(financial stress)

* 이 논문은 2004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4-C00435)

** 주 저 자 : 홍은실 (E-mail : esmail@korea.com)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돈은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이다. 태어날 때도 돈이 필요하고 살아가는 평생 돈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더욱이 죽을 때도 돈이 필요하다. 모든 생활의 메커니즘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며,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고 이를 관리하며, 생존과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데 소비하고 있다.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나 “돈만 있으면 만사 해결된다” 등의 말들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이혼과 가정파탄, 알코올 중독, 자살 등으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경향이 있으며(국민일보, 2002.1.12), 두둑한 유산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를 볼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돈이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이 제공하는 기회는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증폭되고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 목적이 되는 수많은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갑자기 적어져도 우리 자신의 인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 소비자는 다른 청소년들(중, 고등학생)에 비해 용돈 외에도 시간제 노동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자유재량소득수준이 높다. 정은주(1996)가 대학생의 화폐수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월평균 화폐수입은 46만원이었으며, 2개 이상의 복합적인 화폐수입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불충분하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알차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써버리는 사람이 있듯이, 무작정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돈을 잘 관리하는(재정관리) 능력을 기르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은 돈(재정)에 대해 배워서 잘 아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2002)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28%는 가정이나 학교 어디에서도 금융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나마 교육받은 내용도 저축의 필요성과 같이 단순한 것이 치우쳐서 미국이나 일본 대학생에 비해 매우 부족하였다.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사상으로 가치는 목표설정과 생활설계,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인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는 무척 어렵다. 대학생은 비록 후기 청소년기이지만, 청소년기야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옳지 않은 가치관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일 것이다.

김정호(1997)는 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경제교육은 지혜롭고 책임있는 소비자와 생산자, 저축자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사고능력과 함께 올바른 가치태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점에서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교육에는 반드시 경제에 관한 지식의 측면과 가치의 문제까지 균형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책임있는 경제사회인이 되도록 재정교육을 시킬 때 재정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치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머지않아 경제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대학생들이 돈과 관련된 생활, 즉 돈을 벌고(earning), 돈을 불리고(saving and investing), 돈을 쓰고(spending), 빌리는(borrowing or credit) 등의 재정생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재정지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재정생활을 하는데 있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방향이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가치관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대상 대학생들이 재정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알아보며, 각 유형별로 어떠한 재정적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수준을 이해하고, 이들 지식과 가치관에 따른 대학생 유형별 그들의 재정적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보다는 재정생활을 향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정관리교육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대학생 소비자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소비자는 청소년 소비자에 속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

히 변화하는 시기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해 가지만 심리적 발달은 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소비 행동에도 반영되어 미숙하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하기 쉽다(이기춘, 1985; 권미화 · 이기춘, 2000). 오늘날의 청소년 소비자는 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소비자문제 외에도 현대사회의 특성인 마케팅기술의 발달, 소비지향적이며 물질주의적 풍토 때문에 더욱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소비자는 계획적 소비행동과 같은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고유특성과 시대적 특성 때문에 문제 소비행동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이윤금 · 이남숙, 1999; 이은희, 1999; Roberts & Jones, 2001).

이전 세대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비교적 통제되지 않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비슷한 연령층이나 전후의 연령층에 대해 소비의 준거집단으로서 또는 소비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윤금 · 이남숙, 1999).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뿐 아니라 자유재량소비수준이 높다는 특성을 추가할 수 있다. 대학생은 용돈 외에도 시간제노동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재량 소득이 많으며, 이러한 가져분소득의 증가로 구매력이 증가된다(정은주, 1996).

한국과 독일청소년의 수입과 지출실태에 관한 연구(최순중, 2005)에서 한국청소년(대학생 포함)이 독일청소년에 비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훨씬 높으며, 한국청소년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청소년의 지출이 주로 생산재 물품에 '투자'된다면, 한국 청소년의 지출은 대부분 소비재 물품을 위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청소년 소비자에게 문제시되는 소비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상품의 올바른 효용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가치관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소비를 조정하는 내적·외적 환경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2003:2).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청소년 소비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며, 바른 가치관하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갖는 것이다.

대학생 소비자는 다른 청소년소비자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나(정은주, 1996; Varcoe et al., 2003), 그에 비해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으며(국민은행, 2002; Varcoe et al.,

2003),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가치관을 갖고 있다(권미화 · 이기춘, 2000; 이윤금 · 이남숙, 1999; 이은희, 1999; Mowen & Spears, 1999; Roberts & Jones, 2001).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재정)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포함한 관리능력인데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바꾸어 생각하기 쉽다. 재정에 대해 "아는 것"은 재정관리의 기본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관련된 많은 활동이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으며 소비의 부분이 보다 강조되어져서 재정 지식이 보통 금융지식 또는 소비지식(소비자지식)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지식은 금융 지식과 소비지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많은 재정 관리 저술(김혜선 등, 1998; 이기춘 등, 1998; 이연숙 등, 2000)은 재정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부분을 소득의 획득, 저축과 투자, 소비, 신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이러한 돈은 소득의 획득으로 가능해 진다.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소비자는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용돈을 받는 사적 이전소득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근로소득이 소득의 주를 이루며, 아르바이트에서 최저임금제나 소득관련 세금, 실질소득 등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돈을 불리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지식, 소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미래의 소득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능력에 맞게 빌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신용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김효정(2000)은 재무관리 지식을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세금, 신용카드, 연금, 7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임정빈(1998)은 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묻는 9개 문항으로 재무관리지식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재정지식의 하위개념으로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가 경제 체제 내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실, 개념, 관념의 인지적 영역으로 소비자능력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이기춘, 1985). 한편 김기원과 김철수(2000)는 소비자지식을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경험으로 나누었다.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그 상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느낌(feeling of knowing)"을 뜻하며,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실제로 그 상품에 대하여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검사를 통하여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그 상품 범주를 얼마나 많이 접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재정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재정생활을 누리는데 부족하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바른 방향지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가치를 “바람직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의미, 목표를 위해 기초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궁극적인 기준 또는 한 상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하였다. 가치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치는 인간이 행동하는 상황을 형성하고 그들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사용된 고정된 상지의 세트를 공급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지침과 평가의 원칙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김병희 등, 2002; 이경옥·정용선, 1999; 조수현·이연숙, 2006; Sheth et al., 1991)는 가치들을 검토하여 소비와 관련된 가치들을 선정하여 가치척도를 구성하였다. Sheth 등(1991)은 소비와 관련된 가치로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진귀적 가치(epistemic value),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를 들었다. 이경옥과 정용선(1999)은 소비 가치를 물질주의, 권위주의, 평등주의, 쾌락주의, 가족주의, 미래주의, 집단주의, 금융적 성취주의, 인정주의, 순응주의, 정실주의, 실용주의의 12개 가치항목으로 체계화하였다. 김병희 등(2002)은 소비가치를 인정주의, 순응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평등주의, 쾌락주의, 가족주의, 미래주의의 8개 항목으로, 조수현과 이연숙(2006)은 물질주의, 권위주의, 쾌락주의, 가족주의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소비가치 외에도 재정관련 가치로 성실, 절약, 신용, 나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박’이나 ‘한탕’을 꿈꾸기 쉬운 현대 경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돈을 벌고 불리고 쓰고 빌리는 재정생활에서의 ‘성실성’과 ‘절약’ 정신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한편 거래규모가 커지고 외상과 대출 등의 금전거래가 오고 가는 오늘날 사회에서 ‘신용’의 가치는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 즉 신용이 없다면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살다보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단 자기가 갚을 능력이 닿는 데까지 돈을 빌리고 돈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다(국민은행 금융교육 TFT 등, 2003a). ‘나눔’의 가치는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이타적인 목적을 갖는 가치로서 사회정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세금이 의무적인 돈 나누기라고 한다면 기부는 자발적인 돈 나누기라고 할 수 있다(국민은행 금융교육 TFT 등, 2003a).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데 의의를 두는 재정가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치인 것이다.

독일청소년에 비해 한국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강하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최순종(2005)은 한국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길러주고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소비가치와 올바른 경제적 관리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관련 변인

1) 배경변인과 재정에 대한 지식, 가치관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재정지식 수준이 더 높았으며(Hogarth & Hilgert, 2002; Markovich & De Vaney, 1997), 남자가 여자보다 재정적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Churaman, 1988; Lytton & Grable, 1997; Prince, 1993). 돈에 대한 윤리의식(가치관)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자가 더 높았다(Youn & Doyle, 1999). 한편 남자가 여자보다 재정적 열망(집착)이 더 높다는 연구들(Kasser & Ryan, 1993; Lim & Teo, 1997)도 있었다.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은 재정교육과 재정관련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재정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원천을 통해 얻어진다. 학교를 통한 공식적인 교육과 학교 이외의 부모나 친구, 사회단체를 통한 비공식적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재정 정보에 의해 습득되어 진다(Lee & Hogarth, 1999).

2) 재정지식, 가치관과 재정적 제반특성

재정지식과 재정관리 행동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Grable & Lytton, 1998; Hilgert et al., 2003; Hogarth & Hilgert, 2002; Joo & Grable, 2004; Mugenda et al., 1990; Perry & Morris, 2005; Stanger, 1997; Varcoe et al., 2003)는 두 변인간의 긍정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재정지식이 많은 사람은 보다 신뢰할만하게 재정관리 행동의 책임을 다하며(Hilgert et al., 2003; Hogarth & Hilgert, 2002; Perry & Morris, 2005), 재정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ble & Lytton, 1998; Joo & Grable, 2004; Mugenda et al., 1990; Stanger, 1997; Titus et al., 1989; Varcoe et al., 2003).

가치와 재정관리행동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물질주의 가치 등)는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행동이나 소비행동,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미선, 1996; 백경미, 1995; 홍은실 등, 2001), 올바른 가치(친환경적 가치, 목표중심적 가치 등)는 합리적인 소비행동과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화 등, 2000; 홍은실 등, 2002). 물질주의 가치나 이기적이며 자신의 재정적 행복만을 생각하는 가치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관리의 결과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Watson, 2003).

가계나 개인의 재정상태는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화폐소득, 일정기간의 소비지출, 순자산 등과 같은 재정자원을 통해 측

정될 수 있으며(김정숙, 1996; Davis & Helmick, 1985), 주관적 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조건의 변화, 소득적정성, 과거·현재·미래 사이의 재정적 조건의 변화, 상대적 비교감, 열망 및 기대성취도 등과 같이 인지, 열망, 기대 등을 다루고 있다(김정숙, 1996).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한 재정상태는 재정지식과 재정가치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재정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를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하였으나(Mugenda et al., 1990) 재정관리자의 풍부한 재정지식과 올바른 재정가치관은 긍정적인 재정환경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재정상태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실제 재정지식이 높은 사람은 재정지식이 낮은 사람들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하여 결국에 보다 나은 재정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Grable & Lytton, 1998; Joo & Grable, 2004; Mugenda et al., 1990; Stanger, 1997; Titus et al., 1989; Varcoe et al., 2003).

Kasser와 Ryan(1993)은 인생의 주된 목표가 재정적 성공이나 외재적 목표에 있는 사람은 선한관계나 타인을 돕는 것, 개인적 성장과 같은 본질적인데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 빈곤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재정에 대한 지식과 재정만족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Joo & Grable, 2004). Mugenda 등(1990)은 재정 지식과 재정에 대한 만족이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하여 재정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평가하기 때문에 재정지식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결국 재정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낮기 때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재정지식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재정상태의 약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Grable과 Lytton(1998)은 재정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재정적 결정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재정만족도 수준을 높인다고 하였다. Titus 등(1989)은 재무관리지식과 재정만족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등 허망한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를 하면서 재정지식, 기술, 전략 등과 같은 재정 관련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면 기대하는 재정복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정순희, 2003).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책임 있는 경제사회인이 되는데 필요한 재정지식

과 올바른 재정에 대한 가치관에 초점을 두어 오늘날 대학생들의 재정지식과 재정관련 가치관의 경향을 진단하고, 이들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분류하고, 분류된 유형별로 몇 가지 중요한 재정적 특성들을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1] 대학생의 재정(획득, 저축 및 투자, 소비, 신용)에 대한 지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2] 대학생의 재정관련 가치관(성실, 절약, 신용, 나눔)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경변인에 따라 대학생의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의 각 하위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배경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재정관련 변인)에 따라 재정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배경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재정관련 변인)에 따라 재정관련 가치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분포는 어떠한가, 배경변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은 재정적 제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재정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분류된 대학생 소비자에는 그 유형별로 어떠한 재정적 제반특성을 보이는가?

2. 변수의 정의 및 척도 구성

1) 재정에 대한 지식

‘재정에 대한 지식’이란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벌고(금전획득), 돈을 불리며(저축 및 투자), 돈을 쓰고(소비), 빌리는(신용) 데 있어서 얼마나 돈에 대해 잘 아는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알아야 할 지식을 의미한다.

사람이 재정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으로는 먼저 돈을 벌어야(earning)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금전획득에 대한 지식, 번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저축과 투자(saving & investing)에 대한 지식, 돈을 쓰는데 있어서(spending) 필요한 소비 지식, 돈을 빌리는(borrowing) 신용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재정적 지식은

금전획득, 저축 및 투자, 소비, 신용, 4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재정에 대한 지식척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Brucks, 1986; Kidwell & Turrisi, 2003; Ratchford, 2001)와 재정관련 저술(국민은행 금융교육 TFT 등, 2003a, 2003b; 이기춘, 1991)을 토대로 하여 대학생에게 적합한 42문항을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정답비율을 참고하여 난이도 상, 중, 하를 기준삼아 '획득 5문항', '저축 및 투자 6문항', '소비 4문항', '신용 5문항', 총 20문항을 지식척도로 구성하였다. 정답에는 1점, 오답과 모르겠다 응답은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재정관련 가치관

가치는 특정 상황을 초월하여 행동과 결과의 선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배열되는 바람직한

궁극적인 상태(end-state)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신념이다 (Schwartz & Bilsky, 1987). 가치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을 때, '재정관련 가치'란 재정에 관한 목표설정, 활동, 결정 등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치내용으로는 '성실', '절약', '신용', '나눔'이 있으며,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들(홍은실·황덕순, 2002; Ahuvia & Wong, 2002; Burroughs & Rindfleisch, 2002; Oleson, 2004; Schwartz & Bilsky, 1987)의 고찰을 통해 이들 가치 항목 14문항을 구성하였다(<표 1>).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과 요인적재치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2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여, 각 하위영역의 가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1> 재정관련 가치관의 요인분석

요 인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문 항 내 용
요인 1 (성실)	0.74	2.96 (0.21)	1. 돈은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 2.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시도하겠다.#) 3.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이야 말로 가치있는 돈이다. 4. 내가 땀 흘려 번 돈 10만원이 부자 친구의 100만원 보다 값어치 있다고 생각한다.
	0.64 ^{※)}		
	0.69		
	0.64		
요인 2 (절약)	0.75	1.75 (0.13)	5. 적은 돈도 모으면 큰 돈이 된다. 6.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지출을 줄이면 반드시 저축은 할 수 있다. 7. 비싼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두 곳 이상에서 가격을 비교해본다. 8. 쿠폰을 활용하거나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소비생활이다.
	0.79		
	0.31 ^{※)}		
	0.50		
요인 3 (신용)	0.68	1.30 (0.09)	9. 신용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 친구한테 빌린 돈은 약속한 날까지 꼭 갚아야 한다. 11.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버틸 수만 있다면 버티는 것도 괜찮다.#)
	0.80		
	0.72		
요인 4 (나눔)	0.65	1.09 (0.08)	12. 경제적 성공의 이유는 남을 위한 봉사에 있다. 13.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14.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0.65		
	0.66		
		7.10 (0.51)	

※)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임. #)은 역점 처리하였음.

<표 2>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 도	문항 수	Cronbach' α
재정가치관	성 실	.67
	절 약	.55
	신 용	.65
	나눔	.46
재정관리행동	10	.80
재정만족도	4	.79
재정스트레스	4	.70

3) 재정적 제반특성

(1) 재정관리행동

재정관리행동은 홍은실과 황덕순(2002)이 재정관리과정으로서 계획행동과 실행, 평가행동, 이에 저축행동을 추가하여 4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년 혹은 한 달의 주기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지출비목별로 금액을 배분하는 예산에 해당되는 재정 계획행동 3문항, 계획대로 실행하려는 노력과 중간점검, 금전 출납부 등의 지출기록을 포함한 실행 3문항, 계획과 비교하여 지출결산을 하는 평가행동 3문항, 저축행동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재정상태

개인의 재정상태는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재정상태는 객관적 지표인 금전재산액수와 월평균소득, 주관적 지표인 주관적인 경제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금전재산액수는 비상금 보유액을 포함한 저축액으로 측정하였으며, 월평균소득은 부모나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 기타 본인에게 들어오는 돈의 월평균액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주관적 경제수준은 용돈을 포함한 소득수준, 소비수준, 저축액수, 비상금 수준을 총망라하여 자신의 실제 경제(재정)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1점(하)에서 10점(상)까지로 점수를 매기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재정만족도

재정만족도는 Hira와 Mugenda(1999)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척도와 계선자와 유을용(1999)의 재정만족도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청소년 소비자 실정에 맞게 하위영역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저축액수나 비상금보유의 만족, 개인 소득수준(용돈, 아르바이트 수입 포함) 만족, 소비수준 만족,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불만족 한다'에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재정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재정적 스트레스

재정적 스트레스는 Jeong과 Hong(2003)이 Hayhoe 등(2000)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배경변인

(1) 인구통계학적 변인

학년은 자신의 학년을 적게 하였으며, 성별은 남학생은 1점, 여학생은 0점을 주는 가변수(dummy variable)처리를 하여 사용하였다. 전공은 자신의 전공을 질문지에 직접 적게 한 후, 부호화시킬 때 많은 빈도별로 범주화시켜 분석하였다.

(2) 재정관련 변인

재정교육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학교와 사회단체, 기타 기관에서 재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각각 경험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 인	구 분	
		N(%)
학 년	1학년	256(35.21)
	2학년	177(24.35)
	3학년	176(24.21)
	4학년	118(16.23)
성 별	남	243(33.43)
	여	484(66.57)
전 공	생활과학계열	343(47.12)
	이공계열	252(34.62)
	인문사회계열	133(18.27)
용 돈	20만원 미만	99(13.83)
	20~30만원 미만	245(34.21)
	30~40만원 미만	199(27.80)
	40만원 이상	173(24.16)
전 체		733(100.0)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유무를 묻고 유경험자에게 교육 빈도를 물어 측정한 후 3기관의 합계빈도를 사용하였다. 재정관련 매체접촉은 최근 2년 이내에 재정에 관한 책이나 잡지, TV나 라디오, 인터넷, 기타매체에 어느 정도 접했는지를 매체별로 그 빈도를 측정한 후 합계빈도를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하나 이미 성인기로 접어들어 청소년기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료수집은 2006년 9~10월 서울특별시 S대학교, 대전광역시 C대학교, 광주광역시 C대학교와 H대학교, 전라남도 S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아 강의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 80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7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와 전산화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α) 산출, t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던컨의 다중범위분석(Dun-

can's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한편 Levene 통계량은 SPSS를 이용하였다.

IV. 결과해석

1. 대학생의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1) 재정에 대한 지식

대학생의 재정에 대한 지식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전체 재정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2.65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머지않아 곧 경제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재정지식수준이 낮은 것이며,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지식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4하위영역에서는 소비에 대한 지식 점수(68.00)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획득지식(64.80)과 신용지식(63.20) 순이며,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식 점수(52.0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재정활동 가운데 소비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지식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며, 반면 저축 및 투자활동 비율이 낮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재정관련 가치관

대학생의 재정관련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표 4> 재정에 대한 지식의 일반적 경향

지식	점수	Mean(만점)	SD	Range	100점 환산
획득		3.24(5.00)	0.99	0~5	64.80
저축 및 투자		3.12(6.00)	1.25	0~6	52.00
소비		2.72(4.00)	0.74	0~4	68.00
신용		3.16(5.00)	1.09	0~5	63.20
전체		12.53(20.0)	2.52	2~19	62.65

<표 5> 재정관련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가치관	점수	Mean	SD
성실		3.90	0.75
절약		4.12	0.58
신용		4.35	0.52
나눔		3.30	0.60
전체		3.92	0.39

같다. 대학생의 재정관련 가치관의 전체점수는 3.92로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의 하위영역 가운데 신용에 대한 가치점수(4.35)가 가장 높고, 절약에 대한 가치관(4.12), 성실에 대한 가치관(3.9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눔에 대한 가치관 점수(3.3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대학생은 신용과 절약, 성실에 대한 가치관은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나눔에 대한 가치의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999년의 경우 종교헌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개인이 기부한 금액은 2천 6백억 원으로 이를 일인당 기부액으로 환산하면 5,800원이었으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국민은행 금융교육 TFT 등, 2003a).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지식과 가치관

1)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에 대한 지식

배경변인에 따라 재정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하였다. 분산분석의 집단별 동분산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구한 결과 .22~1.83이었으며 유의확률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서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표 7>).

획득에 대한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학년과 전공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획득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점수(3.72)가 가장 높았고 자연·이공계열 학생의 점수(3.45)가 가장 낮았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획득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및 투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학년으로 1, 2학년과 4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학년이 3.42로 가장 높았고 1, 2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전공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 2.84로 가장 높았고, 자연·이공계열에서 2.65로 가장 낮았다. 신용 영역에 대한 배경변인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년, 전공, 성별 3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에 대한 지식 전체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재정지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재정에 대한 지식

배경변인	지식	획득			저축 및 투자			소비			신용			전체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학년	1	3.34	C	10.37***	2.93	B	4.62**	2.66	1.21	3.07	1.19	12.00	C	9.45***			
	2	3.45	BC		3.07	B		2.71							3.15	12.38	BC
	3	3.66	B		3.20	AB		2.80							3.18	12.83	B
	4	3.90	A		3.42	A		2.75							3.29	13.36	A
전공	생활	3.53	AB	3.26*	3.15	1.62	2.73	AB	2.91*	3.06	2.06	12.58	B	5.90**			
	자연이공	3.45	B		3.00		2.65	B				3.06	12.17		B		
	인문사회	3.72	A		3.23		2.84	A				3.29	13.08		A		
성별	남자	3.50	.64	3.16	-.84	2.73	-.23	3.15	-.04	12.55	-.23						
	여자	3.55		3.08		2.71		3.15		12.50							

*p<.05, **p<.01, ***p<.001

<표 7> 재정관련 변인에 따른 재정에 대한 지식

배경변인	지식	획득			저축 및 투자			소비			신용			전체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재정 교육 경험	무	3.45	B	4.96**	2.95	C	12.46***	2.72	.63	3.14	2.38	12.25	B	7.29***			
	1~3	3.64	AB		3.26	B		2.70							3.28	12.88	A
	4 이상	3.73	A		3.57	A		2.80							3.00	13.10	A
관련 매체 접촉	무	3.32	B	4.86**	2.75	C	17.14***	2.62	B	3.00	1.15	11.68	C	14.45***			
	1~10	3.52	AB		3.04	B		2.71	AB						3.17	12.43	B
	11 이상	3.71	A		3.59	A		2.84	A						3.20	13.34	A

*p<.05, **p<.01, ***p<.001

식 수준이 높아 4학년의 재정지식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공에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자연이공계열이나 생활계열 학생보다 재정지식점수가 높았다. 선행연구(Churaman, 1988; Hogarth & Hilgert, 2002; Lytton & Grable, 1997; Markovich & De Vaney, 1997; Prince, 1993)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재정지식 수준이 더 높고, 재정적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획득에 대한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재정관련 변인은 재정교육경험과 관련매체접촉으로 재정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과 4회 이상인 집단간, 그리고 관련매체 접촉이 전혀 없었던 집단과 11회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재정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정관련 매체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획득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식에서도 두 재정관련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었다. 두 변인 모두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서 재정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정관련 매체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지식에는 관련매체 접촉 변인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재정관련 매체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소비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지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관련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정에 대한 지식 전체에서는 재정교육경험과 관련매체 접촉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2년 동안 재정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과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재정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재정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재정관련 매체 접촉횟수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재정관련 매체에 접촉하였던 횟수가 많은 대학생일수록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나 사회단체, 기타기관에서의 재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이며, 교육 외에도 책이나 잡지,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정관련 내용을 접해 보는 것이 재정 지식을 쌓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결과이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관련 가치관

배경변인에 따라 재정관련 4가지 가치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집단별 동분산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구한 결과 .31~2.07이었으며 유의확률 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서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표 9>).

성실에 대한 가치관은 학년, 전공, 성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절약에 대한 가치관은 전공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절약에 대한 가치관은 생활과학계열 학생과 다른 계열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생활과학계열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학생(4.17)이 남학생(4.02)보다 절약에 대한 가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신용과 나눔에 대한 가치관은 학년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용에 대한 가치관 점수는 4학년이 가장 높았고 1, 2학년은 낮게 나타났다. 나눔에 대한 가치관 점수는 다른 학년에 비하여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 전체점수는 학년과 전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는 4학년과 1, 2학년이 차이를 보여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바람직한 재정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서는 생활과학계열 학생과 다른 전공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재정관련 가치관

배경변인	가치관	성 실			절 약			신 용			나 눘			전 체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학년	1	3.91			4.12			4.30	B		3.22	B		3.88	B	
	2	3.84			4.08			4.31	B	2.63*	3.31	B	3.41*	3.88	B	2.63*
	3	3.94		.62	4.13		.56	4.39	AB		3.30	B		3.94	AB	
	4	3.93			4.17			4.44	A		3.44	A		3.99	A	
전공	생활	3.96			4.20	A		4.35			3.34			3.96	A	
	자연이공	3.85		2.05	4.07	B	6.75***	4.36		.10	3.25		1.96	3.88	B	4.77**
	인문사회	3.85			4.01	B		4.33			3.25			3.86	B	
성별	남자	3.84			4.02			4.39			3.28			3.88		
	여자	3.93		1.44	4.17		3.13**	4.33		-1.49	3.30		.37	3.93		1.55

*p<.05, **p<.01, ***p<.001

<표 9> 재정관련 변인에 따른 재정관련 가치관

배경변인	지식	성실			절약			신용			나눔			전체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재정	무	3.86			4.09	B		4.34			3.25	B		3.89	B	
교육	1~3	3.96		1.93	4.09	B	5.90**	4.34		.17	3.36	AB	3.37*	3.94	AB	4.82**
경험	4이상	3.99			4.30	A		4.37			3.39	A		4.01	A	
관련	무	3.77			4.07			4.30	B		3.19			3.83	B	
매체	1~10	3.94		2.01	4.10		1.75	4.32	B	3.39*	3.31		1.72	3.92	AB	3.17*
접촉	11이상	3.89			4.19			4.44	A		3.33			3.96	A	

*p<.05, **p<.01

<표 10> 4 유형별 재정지식과 가치관

유형	지식과 가치관		재정지식		재정 가치관	
	M	D	M	D	M	D
유형1(지식↑, 가치관↑)	14.46	A	4.20	A		
유형2(지식↑, 가치관↓)	14.31	A	3.59	B		
유형3(지식↓, 가치관↑)	10.57	B	4.19	A		
유형4(지식↓, 가치관↓)	10.09	B	3.54	B		
	F값		451.00***		433.80***	
	R ²		.65		.64	

***p<.001

보여 생활과학계열 학생이 보다 바람직한 재정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바람직한 재정관련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신용과 나눔에 대한 가치수준이 높았으며, 생활과학계열 학생이 다른 전공학생보다 그리고 여학생이 절약에 대한 가치수준이 높았다. 가치관 확립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므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 1학년 때부터 가능한 빨리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소비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과학계열 학생은 타전공 학생들에 비해 재정관련 가치문제를 전공과목에서 접할 기회가 있으나 생활과학 계열이 아닌 그 밖의 전공학생이나 남학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관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에게 소비자교육내용으로 재정 가치문제, 특히 자원절약 부분을 첨가,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성실에 대한 가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재정관련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절약 가치는 재정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최근 2년 동안 4회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4회 이상인 집단의 절약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신용에 대한 가치는 재정관련 매체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2년 동안 재정관련 매체 접촉횟수가 11회 이상인 집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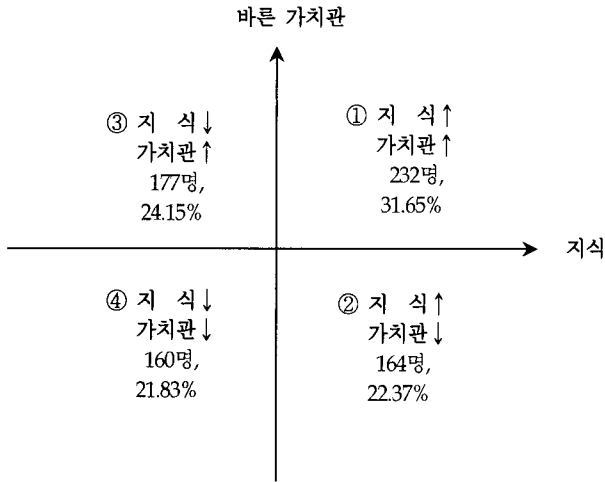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11회 이상인 집단에서 신용에 대한 가치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눔에 대한 가치는 재정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재정교육 경험이 4회 이상인 집단에서 나눔에 대한 가치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 전체 점수는 재정교육경험과 관련매체 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정교육 경험이 4회 이상인 집단과 재정관련 매체 접촉횟수가 11회 이상인 집단에서 재정관련 가치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관련 가치관도 재정교육경험과 재정관련 매체접촉이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재정교육과 빈번한 관련매체 접촉이 요구된다.

3. 재정지식과 가치관에 의한 대학생소비자 유형

1) 유형분류 및 분포

재정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12.53)와 재정관련 가치관의 평균점수(3.92)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를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대학생 소비자 유형별 재정지식과 가치관의 유의차 검증은 <표 10>과 같다. 4가지 소비자유형은 재정지식과 재정가치관에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재정지식의 65%를, 그리고 재정가치관의 64%를 설명하였다.

소비자 유형의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유형 1>은 지식점수와 가치관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이며, <유형 2>는 지식점수는 높으나 가치관 점수는 낮



<그림 1> 재정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분포

은 유형이다. <유형 3>은 지식점수는 낮으나 가치관 점수는 높은 유형이며, <유형 4>는 지식점수와 가치관 점수가 모두 낮은 유형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유형 1>은 31.7%로 가장 많으며, <유형 2>는 22.4%, <유형 3>은 24.2%, <유형 4>는 21.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형 1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재정지식과 바른 재정가치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고무할만한 결과이며, 이 유형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도록 다양한 소비자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유형별 배경변인 특성

소비자 유형별 배경변인의 특성을 기술하면 <표 11>, <표 12>와 같다.

4가지 대학생소비자유형에 따라 학년과 전공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높은 유형1은 1학년 학생과 이공계열 학생에게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생활계열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식은 높으나 가치관이 낮은 유형2는 1학

<표 11> 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인구통계학적변인

N(행%)

인구통계 변인 \ 유 형	학 년				전 공			성 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생활	자연/이공	인문/사회	남자	여자
지식 ↑, 가치관 ↑	60 (26.09)	49 (21.30)	65 (28.26)	56 (24.35)	125 (54.11)	66 (28.57)	40 (17.32)	73 (31.74)	157 (68.26)
지식 ↑, 가치관 ↓	47 (29.19)	45 (27.95)	44 (27.33)	25 (15.53)	68 (42.24)	51 (31.68)	42 (26.09)	60 (37.27)	101 (62.73)
지식 ↓, 가치관 ↑	73 (41.24)	41 (23.16)	43 (24.43)	20 (16.95)	81 (45.76)	65 (36.72)	31 (17.51)	57 (32.2)	120 (67.80)
지식 ↓, 가치관 ↓	76 (47.80)	42 (26.42)	24 (15.09)	17 (10.69)	69 (43.40)	70 (44.03)	20 (12.58)	53 (33.33)	106 (66.67)
총합	256 (35.21)	177 (24.35)	176 (24.21)	118 (16.23)	343 (47.12)	252 (34.62)	133 (18.27)	243 (33.43)	484 (66.57)
chi-sq 값	40.90***(df=9)				19.26**(df=6)			1.48(df=3)	

*p<.05, ***p<.001

<표 12> 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재정관련변인

유 형	재정관리행동	재정교육경험		관련매체접촉	
		M	D	M	D
지식 ↑, 가치관 ↑		1.82	A	7.91	A
지식 ↑, 가치관 ↓		1.49	AB	7.26	A
지식 ↓, 가치관 ↑		1.22	BC	5.57	B
지식 ↓, 가치관 ↓		0.91	C	5.28	B
F값		4.58**		8.59***	

*p<.05, ***p<.001

년 학생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2, 3학년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지식은 낮으나 가치관이 높은 유형3은 1학년과 자연이공계열 학생에게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낮은 유형 4는 1학년과 자연이공계열 학생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과 생활계열, 인문사회계열 학생에게서는 낮게 나타났다. 즉 바람직한 소비자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 1은 고학년 학생과 생활계열 학생이,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유형4는 저학년, 특히 1학년 학생과 자연이공계열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분류된 대학생 소비자의 유형별로 재정적 제반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유형의 기반이 되는 재정지식과 가치관이 재정적 제반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유형별로 재정적 제반특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집단별 동분산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구한 결과 .69~2.43이었으며 유의확률 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서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후검증으로는 Duncan의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 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재정상태

재정상태 유형	주관적 경제수준		금전재산액		월평균소득	
	M	D	M	D	M	D
지식 ↑, 가치관 ↑	6.20	A	63.34		30.95	B
지식 ↑, 가치관 ↓	5.70	B	77.49		37.29	A
지식 ↓, 가치관 ↑	6.02	AB	65.98		30.14	B
지식 ↓, 가치관 ↓	5.96	AB	74.28		29.46	B
F값	3.70**		0.71		4.75**	

**p<.01

이었다.

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높은 유형1에 속하는 학생이 재정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낮은 유형4의 학생은 재정교육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1과 유형2에 속하는 학생은 재정관련 매체의 접촉빈도가 높았으며, 유형 3과 유형 4는 접촉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역시 재정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재정관련 매체에 자주 접하는 학생이 재정지식과 가치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1) 재정지식과 가치관이 재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식과 가치관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이들 변인이 재정적 제반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 재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가치관으로 바람직한 재정관련 가치관을 지닐수록 재정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은 재정상태와 재정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정스트레스에는 지식과 가치관의 상호작용 항과 재정지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정지식과 가치관의 방향이 다를 때 재정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소비자유형별 재정적 제반특성

<표 13> 재정적 제반특성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의 회귀분석

변인	재정특성	재정상태											
		재정관리행동		경제수준		금전재산액		월평균소득		재정만족도		재정스트레스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재정지식	.07	.30	-.27	-.47	-6.84	-.17	4.26	.51	.02	.06	.20	.72*	
재정가치관	.53	.35*	-.62	-.16	-41.99	-.16	4.52	.08	.31	.18	.45	.26	
지식*가치관	-.01	-.25	.08	.61	2.14	.24	-.75	-.40	-.00	-.04	-.06	-.90*	
상수	0.96		7.94		214.61		-2.14		1.68		1.02		
F값	19.34***		4.14**		1.02		7.80***		7.26***		6.87***		
Adj-R ²	.07		.02		.00		.03		.03		.03		
D-W	1.81		2.03		1.95		1.91		2.00		1.88		

*p<.05, **p<.01, ***p<.001

<표 14> 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재정관리행동

유형	재정관리행동		계 획		실 행		평 가		저 축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지식 ↑, 가치관 ↑	3.42	A	3.48	A	3.53	A	2.63	A	3.39	A		
지식 ↑, 가치관 ↓	3.30	AB	3.31	B	3.28	B	2.19	C	3.18	B		
지식 ↓, 가치관 ↑	3.39	A	3.60	A	3.48	A	2.43	B	3.38	A		
지식 ↓, 가치관 ↓	3.19	B	3.28	B	3.16	B	2.29	BC	3.12	B		
F값	3.19*		7.68***		10.82***		7.86***		10.75***			

*p<.05, ***p<.001

2) 유형별 재정적 제반특성

(1) 유형별 재정관리행동

소비자유형에 따라 재정관리 행동의 하위영역과 전체 행동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계획행동은 가치관이 높은 유형(유형1, 유형 3)과 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낮은 유형(유형4)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올바른 재정가치관을 지닌 학생이 계획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과 평가, 전체 재정관리행동은 지식 점수와 가치관 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1과 지식 점수는 낮고 가치관 점수는 높은 유형3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지식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재정관련 가치관을 지닌 대학생유형이 실행과 평가, 전체적인 재정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행동은 유형1과 2, 3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서 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높은 유형 1에서 저축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지식은 높으나 가치관이 낮은 유형2에서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과 실행, 평가를 포함한 재정관리 행동은 재정에 대한 지식정도와는 관계없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서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지닌 학생이 재정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었다. 재정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Hilgert, et al., 2003; Hogarth & Hilgert, 2002; Perry & Morris, 2005)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올바른 가치가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권미화 등, 2000; 홍은실 등, 2002)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저축행동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학생이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이 적게 하나, 특히 재정지식이 높으면서 바람직한 가치 수준이 낮은 학생이 더욱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형별 재정상태

소비자 유형에 따라 주관적 경제수준과 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15>). 재정지식점수와 가치관 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1과 지식점수는 높으나 가치관 점수가 낮은 유형2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재정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집단은 자신의 실제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하였고, 재정지식은 높으나 바른 가치관 수준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경제수준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재정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재정상태를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Mugenda et al., 1990) 하지만 인생의 주된 목표가 재정적 성공이나 외재적인 면에 있는 사람이 선한 관계나 타인을 돕는 것, 개인적 성장과 같은 본질적인 데 있는 사람보다 더 빈곤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Kawwer & Ryan, 1993)를 보면, 올바른 가치관과 함께 풍부한 재정지식은 자신의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 하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풍부한 재정지식은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월평균소득은 유형2와 다른 유형간의 차이를 보여서 재정지식수준이 높고 가치관 수준은 낮은 학생의 월평균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유형별 재정만족도

소비자 유형에 따라 용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소비수준, 저축액수준, 전반적인 재정상태 하위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6>). 소비수준과 저축액수준,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도 전체점수에서는 지식 점수와 가치관 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1과 지식 점수는 낮고 가치관 점수는 높은 유형3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정지식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재정관련 가치관을 지닌 대학생유형이 재정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ugenda 등(1990)은 재정지식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Grable과 Lytton(1998)도 재정지식은 궁극적으로 재정만족도 수준을

<표 16> 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재정만족도

유형	재정만족도		용돈수준		소비수준		저축액수준		재정전반상태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지식 ↑, 가치관 ↑	3.35		3.13	A	2.82	A	3.15	A	3.11	A		
지식 ↑, 가치관 ↓	3.19		3.00	AB	2.58	B	2.81	C	2.89	B		
지식 ↓, 가치관 ↑	3.37		3.11	A	2.81	A	3.03	AB	3.08	A		
지식 ↓, 가치관 ↓	3.21		2.93	B	2.64	AB	2.94	BC	2.93	B		
F값	2.10		2.65*		2.79*		5.44***		4.70**			

*p<.05, **p<.01, ***p<.001

<표 17> 지식과 가치관 유형별 재정스트레스

유형	재정스트레스	
	M	D
지식 ↑, 가치관 ↑	2.43	B
지식 ↑, 가치관 ↓	2.68	A
지식 ↓, 가치관 ↑	2.58	A
지식 ↓, 가치관 ↓	2.60	A
F값	4.70**	

**p<.01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Titus 등(1989)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식과 재정만족도가 유의한 관계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4) 유형별 재정스트레스

재정스트레스는 지식 점수와 가치관 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1이 나머지 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지식과 가치관 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1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지식만 높은 유형이나 재정가치관만 높은 유형 모두 재정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재정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식과 함께 바람직한 재정가치관 확립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전체 재정지식 점수는 62.65였으며, 소비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고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재정활동은 소비활동이 주를 차지하고 저축 및 투자활동의 비율은 성인에 비해 매우 낮아 지식의 경향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대학생은 머지않아 경제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것이므로 재정교육 내용에 저축

과 투자에 대한 지식을 추가,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지식 수준은 학년이 높을수록, 인문사회계열 학생에게서, 재정교육경험과 재정관련 매체 접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결과이며, 계속하여 대학생의 재정지식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교육과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전공을 통해 재정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자연이공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재정에 대한 지식 교육이 선행된다면, 현재의 재정관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비 사회인으로서 재정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재정관련 가치관의 전체점수는 3.92였으며, 신용과 절약에 대한 가치는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나눔에 대한 가치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가치관 확립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므로 나눔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여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절약에 대한 가치는 생활과학(human ecology)계열 학생이 다른 계열 학생보다, 그리고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에 대한 가치와 나눔에 대한 가치는 4학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

1학년 때부터 가능한 빨리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소비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폭넓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계열이 아닌 그 밖의 전공학생이나 남학생에게는 소비자교육내용으로 재정적 자원절약 부분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교육경험과 재정관련 매체접촉은 재정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재정지식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교나 사회단체, 기타기관에서의 재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였으며, 교육 외에도 책이나 잡지,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정관련 내용을 접해 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에게서 낮은 가치수준을 보였던 나눈의 가치가 재정교육경험과 긍정적 관계가 있었던 점을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 정착되지 못한 좋은 가치관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넷째, 재정지식과 가치관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재정지식과 가치관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이 31.6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재정지식과 바른 재정가치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고무할만한 결과이며, 이 유형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도록 다양한 소비자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정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높은 유형은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재정만족도 가장 높고,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대로 올바른 재정 가치관과 풍부한 재정 지식은 자신의 경제수준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재정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재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는 변인이므로 소비자교육에는 반드시 지식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병행해야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바람직한 재정 가치관 수준은 높으나 재정지식이 낮은 유형은 재정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서 긍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한편 재정지식은 높으나 바람직한 재정가치관 수준이 낮은 유형은 재정지식과 가치관이 모두 낮은 유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을 더 적게 하며 재정만족도가 낮고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적절한 재정지식과 함께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의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자신의 재정생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정 지식과 재정가치관 사이에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된 다음 재정에 대한 지식이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대로 올바른 가

치관의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 지식만 많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정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재정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단계적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이 요구된다.

□ 접수일 : 2007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6월 21일

【참 고 문 헌】

- 계선자·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50.
국민일보. 2002년 1월 12일자
국민은행(2002). 20대의 소비·금융행태-현명한가?, 국민은행 연구소.
국민은행 금융교육 TFT외(2003a). 스무살 이제 돈과 친해질 나이. 서울: 미래의 창.
국민은행 금융교육 TFT외(2003b). 돈은 고마운 친구. 서울: 미래의 창.
권미화·이기춘(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75-190.
김기원·김철수(2000).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1(2), 89-119.
김미선(1996). 물질주의 성향과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병희·신운철·한상필(2002).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소비 가치 비교연구. **광고학 연구**, 13(5), 97-116.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정호(1997). 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 4회 워크숍. "올바른 경제교육을" 주제발표집. www.cfe.org
김혜선·배미경(1998). 가계재무관리. 서울: 학지사.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6.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기춘(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춘(1991). 가계경제학. 서울: 교문사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원사.

- 이경옥·정용선(1999). 소비자 가치의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2(1), 139-162.
- 이연숙·양세정·주인숙(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윤금·이남숙(1999). 대학생의 과소비성향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5), 19-29.
- 이은희(1999).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 성향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31.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정순희(2003). *소비자재정설계*. 서울: 신정.
- 정은주(1996). 수도권 지역 대학생 소비자들의 화폐수입과 지출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이연숙(2006). 서울시 대학생의 소비가치 유형과 예술상품 소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1), 83-105.
- 최순중(2005). 한국과 독일 청소년이 수입, 지출, 부채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229-255.
-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2003). *청소년의 소비생활 - 이렇게 교육해보세요*. 서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 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홍은실·황덕순(2002). 여대생소비자의 목표중심적 가치가 재정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175-186.
- Ahuvia, A. C. & Wong, N. Y.(2002). Personality and Values Based Materialism: Their Relationship and Origi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4), 389-402.
- Brucks, M.(1986). A Typology of Consumer Knowledge Cont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3, 58-63.
- Burroughs, J. E. & Rindfleisch A.(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 348-370.
- Churaman, C. V.(1988). College Student Use of Consumer Credit. In Proceedings for the 3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edited by Vicki L. Hampton: 107-113.
- Davis, E. P. & Helmick, S.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Allyn and Bacon. Inc.
- Gable, J. E. & Lytton, R. H.(1998).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a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1), 61-73.
- Hayhoe, C. R., Leach, L. J., Turner, P. R., Bruin, M. J., & Lawrence, F.C.(2000). Differences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1), 113-133.
- Hilgert, M. A., Hogrth, J. M., & Sondra Beverly(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89(7), 309-322.
- Hira, T. K. & Mugenda, O. M.(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worth and Financial Beliefs, Behavior,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1(4), 76-82.
- Hogarth, J. M. & Hilgert, M. A.(2002). Financial Knowledge, Experience and Learning Preferences: Preliminary Results from a New Survey on Financial Literacy. *Consumer Interest Annual*, 48, 1-7.
- Jeong, W. Y. and Hong, E. S.(2003). Attitudes and Use of Credit Cards and Financial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ARAHE*, 10(3), 174-177.
- Joo, S. H. & Gable, J. E.(2004). An Exploratory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1), 25-50.
- Kasser, T. & Ryan, R. M.(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 Kidwell, B. & Turrisi, R.(2003). An Examination of Money Management Tendenc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0, 112-114.
- Lee, J. & Hogarth, J. M.(1999). The Price of Money: Consumers Understanding of APRs and Contract Interest Rates.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18(Spring): 66-76.
- Lim, V. K. G. & Teo, S. H.(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ndergraduate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369-386.
- Lytton, R. & Gabel, J. E.(1997). A Gender Comparison of Financial Attitudes. Proceedings from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Athens, GA:1-14.

- Markovich, C. A. & De Vaney, S. A.(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3), 61-65.
- Mowen, J. C. & Spears, N.(1999). Understanding Compulsive Buying among College Students: A Hierarchical Approac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8(4), 407-430.
- Mugenda, O. M. Hira, T.K.,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343-360.
- Prince, M.(1993). Women, Men, and Money Styl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175-182.
- Ratchford, B. T.(2001). The Economics of Consumer Knowled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397-411.
- Roberts J. A & Jones, E.(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213-240.
- Oleson, M.(200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ttitudes and Maslow's Hierarchy of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8(1), 83-92.
- Perry. V. G. & Morris, M. D.(2005). Who Is in Control? The Role of Self-Perception, Knowledge, and Income in Explaining Consumer Financial Behavior.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9(2), 299-313.
- Schwartz, S. H. & Bilsky, W.(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heth, J. N., Newman, B. I. & Gross, B. L.(1991). Why We Buy What We Bu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159-170.
- Stanger, T.(1997). Future Debtors of America. *Consumer Reports*, 62, 16-19.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Varcoe, K. P., Peterson, S., Garrett, C., Martin, A., Rene, P., & Costello, C.(2001). What Teens Want to Know about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3(2), 30-34.
- Watson, J. J.(2003). The Relationship of Materialism to Spending Tendencies, Saving, and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 723-739.
- Youn, S. & Doyle, K. O.(1999). Toward a Cross-disciplinary Dialogue about the Meanings of Money. In E. J. Arnould & L. M. Scott(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6, 431-438.